

OECD-GSF-NEO 국제운영위 활동보고

문홍규¹, 한원웅¹, 임홍서¹, 변용익²

¹한국천문연구원 지구접근천체연구실 (Near Earth Object Patrol Lab.)

²연세대학교 천문대

OECD GSF (Global Science Forum)는 Mega Science Forum (1992-1999)을 확대 개편한 OECD 산하 기구로서 천문학 분야에서는 ALMA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의 산파 역할을 했다. GSF는 초대형 연구시설 건설, 대용량 DB 구축, 과학임무 분배 수행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과학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, 회원국 정부에 대해서 최종 합의사항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.

지난 2002년, OECD GSF 6차 총회에서 영국은 NEO Working Group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으며, 같은 해 GSF는 NEO 국제운영위(Near Earth Object International Committee)를 설치,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. 한국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NEO의 위협과 국제 공동대응에 관한 영국 측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, 현재 NEO 운영위에 위원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. 2003년 1월, OECD GSF는 ESA/ESRIN 연구소에서 "Workshop on Near Earth Objects: Risks, Policies and Actions"를 개최했고, 2개월 여의 수정과 검토 기간을 거쳐 회원국에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. 15개 GSF 회원국에 배포된 이 보고서는 대정부 권고안 형식을 띠고 있으며, "NEO의 위협은 실재할 뿐 아니라, 회원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인식,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제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"고 밝히고 있다. 워크숍 기간 중 많은 외국 참가자들은 남반구 전용 관측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, 이들은 한국의 남아공 관측소가 남반구의 유일한 NEO 탐사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. 이 워크숍은 과학자와 관료가 NEO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한 첫 회의라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.

영국은 현재 2004년 초 개최를 목표로 "Workshop on Near Earth Objects: Natural Hazard Assessment and Risks Methodologies"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. 한국은 향후 GSF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 NEO 탐사팀들과의 정보 및 기술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, 전문가들로부터 OECD GSF 활동이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. 아울러, 천문연에서는 OECD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 우주방위협회 (JSGA)와의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